



김도영

## 부상에 쉬어가는 황대인 부상에서 복귀한 김도영



KIA 타이거즈 황대인이 부상으로 잠시 쉬어간다. 김도영은 부상 복귀전을 치렀다.

KIA가 14일 키움과의 경기에서 앞서 엔트리에 변화를 줬다. 전날 수비 도

중 타자주자 임지열과 충돌했던 황대인이 우측 허벅지 근육 손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큰 부상은 아닌만큼 황대인은 휴식을 취한 뒤 10일 후에 복귀할 전망이다.

또 전날 2-1의 접전 상황에서 4개의 볼넷을 허용하면서 밀어내기로 2실점을 한 좌완 김정민이 빠지고, 사이드암 서덕원이 등목됐다.

13일 경기 전 남은 시즌 '부상'이 최대 변수라고 강조했던 김종국 감독은 "그렇게 부상 조심하려고 강조했는데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 같다. 부상자 관리를 제일 잘해야 하는 시국이다. 그래도 트레이너 파트에서 한 톤 정도만 쉬어주면 회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황대인의 부상 소식을 전했다.

1루를 지키던 황대인이 빠지면서 라인업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날 김종국 감독은 류지혁에게 1루를 맡겼고,

황대인 허벅지 부상 10일 휴식 1루는 김석환·류지혁이 맡아 김도영 3루수 겸 9번타자 출장 "개막전 만큼이나 기대된다"

김도영이 3루수 겸 9번 타자로 선발 출장했다.

지난 8월 17일 SSG와의 경기에서 수비 도중 공에 맞아 손바닥 열상 부상을 입었던 김도영의 부상 복귀전.

재출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그라운드에서 오르려던 김도영은 "개막전만큼이나 너무 기대된다"며 함박 웃음을 보였다.

공수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졌던 시기에 부상을 입은 만큼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아쉬운 부상이었지만 김도영은 "오히려 좋았다"고 재출전의 시간을 돌아봤다.

김도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립된 상황에서 내려가서 오히려 좋았던 것 같다. 주변에서도 타이밍 좋게 쉬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다. 더 큰 부상안 당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부상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게 부상을 입었는데,

다른 곳은 괜찮아서 다행이었다"며 "(재활하면서) 배팅 욕심 안 부리고 스케줄 대로 차분하게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다시 시즌을 시작한 김도영에게 김종국 감독은 '수비'를 주문했다.

김종국 감독은 "수비만 잘하라고 이야기했다. 타격에서는 부담 없이 했으면 좋겠다. 타격은 형들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수비만 잘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도영은 "감독님이 하신 말씀처럼 욕심 안 부리고 수비만 집중해서 할 생각이다"며 "또 주루플레이 하고 싶기 때문에 안타가 아닌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타석에 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황대인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서 김종국 감독은 류지혁과 김석환을 중심으로 1루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국 감독은 "주전 1루수가 빠졌으니까 상황에 맞춰 운영해야 할 것 같다. 김석환과 류지혁이 돌아가면서 역할을 해줄 것 같다"며 "빈자리를 다른 선수가 확실하게 차지할 수도 있다. 그건 모르는 일이다. 자리를 비우면 누구든 차지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다. (기회를 받는 선수들이)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노승열 휴가 즐기러 갔다 PGA 개막전 티켓 확보 아내 처음으로 캐디 맡아

노승열(31)이 16일(한국시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파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2-2023 시즌 개막전 포티넷 챔피언십(총상금 800만 달러)에 출전하게 된 사연이 화제다.

노승열은 지난 13일 열린 대회 월요예선에서 연장전 끝에 포티넷 챔피언십 출전권을 따냈다.

무려 6명이 연장전을 치러 2명에게 출전권이 돌아갔는데, PGA투어에서 5승을 올린 애런 배들리(호주)와 노승열이 주인공이 됐다.

노승열은 애초 이 대회 월요예선에 출전할 계획이 없었다.

얼마 전 결혼한 노승열은 아내와 함께 와인 산지로 유명한 내파에 휴가를 즐기러 왔다가 근처에서 포티넷 챔피언십 월요예선이 열리는 사실을 알게 됐다.

와이너리 방문 계획을 잡고 월요예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노승열은 한 번도 캐디를 해본 적이 없는 아내에게 백을 맡겼다.

노승열은 "아내는 그저 클럽만 날랐지만 서로 많은 대화도 나누고 행복한 경험이었다"면서 "아내는 내가 버디를 하면 깜짝깜짝 놀라더라. 합격하면 휴가를 즐길 수 없을까 봐 걱정이 됐던 모양"이라고 웃었다.

2014년 PGA투어 취리히 클래식에서 우승한 노승열은 지난해 페덱스 랭킹 125위에 들지 못한다. 콘페리투어 파이널시리즈에서도 25위 안에 진입하지 못해 PGA투어 카드를 잃었다.

/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의 이스타디우 조제 알발라드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 예선 D조 2차전 스포르팅 리스본(포르투갈) 대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 경기에서 토트넘의 손흥민(오른쪽)이 리스본 선수들의 수비를 뚫고 드리블하고 있다. /연합뉴스

### LIV 골프 최종전 상금이 무려 696억원

#### 다음달 28일부터 미국서 열려 골프대회 사상 최고 상금 될 듯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후원하는 LIV 골프 시리즈 인비테이셔널의 시즌 최종전 총상금이 5000만 달러(약 696억원)로 책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인 ESPN은 1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대한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공개한 LIV 골프의 규칙과 규정을 인용해 다음달 28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LIV 골프 시리즈 팀 챔피언십의 총상금이 5000만 달러라고 전했다.

2022-2023시즌 PGA 투어 메이저 대회의 총상금 규모가 2000만 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LIV 골프 시리즈 최종전은 골프 대회 사상 가장

많은 상금이 걸린 대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ESPN에 따르면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트럼프 내셔널 도널드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LIV 골프 시리즈 팀 챔피언십은 팀 대항전 방식으로 치러진다.

총 48명의 출전자가 12개 팀으로 배정돼 토너먼트로 경기를 치르며, 우승팀에는 1600만 달러의 우승 상금을 준다.

2위 팀은 1000만 달러, 3위 팀은 800만 달러, 4위 팀은 200만 달러의 상금을 받는다.

또 5위~8위 팀에게도 각각 200만 달러가 수여되고, 9위~12위 팀도 각각 100만 달러가 돌아간다.

다만 LIV 골프 측은 "팀 챔피언십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ESPN에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

### ‘슈팅 제로’ 손흥민 8경기째 골 침묵

#### UEFA 챔스 스포르팅 리스본전 토트넘 0-2 완패 조 2위로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 손흥민(30)의 골 침묵이 2022-2023시즌 개막 이후 공식전 8경기째 이어졌다.

소속팀 토트넘은 스포르팅 리스본(포르투갈)에 달미를 잡혀 시즌 첫 패배를 떠안았다.

손흥민은 14일 열린 스포르팅과의 2022-202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D조 2차전 원정 경기에 선발로 출전, 후반 27분 데얀 콜루세브스키와 교체될 때까지 뛰었다.

지난 시즌 EPL에서 23골을 터뜨려 무함마드 살라(리버풀)와 공동 득점왕에 오른 것을 포함해 공식전에서 24골을 몰아쳤던 손흥민의 이번 시즌

마수질이 득점포는 이날도 나오지 않았다.

손흥민은 지난달 초 막을 올린 EPL에서 6경기 득점 없이 도움 하나에 그치고 있고, 조별리그 2경기 치른 UCL에서도 골 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손흥민이 잠잠한 가운데서도 앞서 EPL 6경기에서 4승 2무, UCL 조별리그에서 1승으로 무패 행진을 이어오던 토트넘은 이날 스포르팅에 후반 막바지 연속 실점하며 0-2로 완패,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다.

D조에서 1승 1패로 승점 3(골 득실 0)을 올린 토트넘은 2연승의 스포르팅(승점 6)에 이어 조 2위에 자리했다.

손흥민과 해리 케인, 히사를리송의 선발 공격진을 내세운 토트넘은 여러 차례 골문을 두드렸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전반 42분엔 케인의 침투 패스를 받은 히사를리송이 페널티 지역 왼쪽을 돌파해 원발 슈트로 골

문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후반 들어서도 0의 균형이 깨지지 않자 토트넘은 후반 27분 손흥민을 콜루세브스키로 바꿔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으나 여의지 않았다. 이것이 이날 토트넘의 유일한 교체 카드였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닷컴 자료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채 교체됐다.

이날 스포르팅에선 일본 국가대표 미드필더 모리타 히데마사가 선발 출전, 후반 26분까지 뛰며 손흥민과의 '미니 한일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한편 이 경기에 이어 프랑크 마르세유에서 열린 다른 D조 2차전에서는 프랑크푸르트(독일)가 마르세유를 1-0으로 제압, 1승 1패로 토트넘에 이어 3위(승점 3·골 득실 -2)에 올랐다. 토트넘과의 1차전(0-2)에 이어 2연패를 당한 마르세유는 최하위(승점 0)에 그쳤다. /연합뉴스